



모내기 준비 바쁜 農心

모내기철이 시작된 가운데 모처럼 단비가 내려 벼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24일 오후 화순군 화순읍 들녘에서 농부들이 모내기를 위해 모판을 옮기고 있다. 비는 25일 오전까지 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뇨 예방에 청국장 탁월”

식품연구 첫 입증

그동안 막연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 청국장이 당뇨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입증됐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김동수) 권대영 박사팀은 박선민 호서대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전통 발효식품 중 청국장의 발효산물이 당뇨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박사팀은 이번 연구에서 청국장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및 항암 효과를 지닌 물질인 폴리페놀의 총량과 다양한 기능성 펩티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우리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콩 단백질의 하나인 이소플라본 계열의 다이제틴, 제니스테인, 글리시테인 등 유익한 물질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청국장의 발효 산물을 실험용 쥐(제2형 당뇨 쥐)에게 8주 가량 먹인 결과,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에 중요한 베타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식품전문잡지인 미국의 프로세스생화학지와 유럽영양학회지에 발표돼 국제적으로도 타당성을 입증받았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대선공약 전략’이 없다

한나라 대선토론회 대응 못해... 발빠른 대처 대구·전북 등과 대조

광주와 전남의 발전 구상을 담은 그랜드 플랜과 주요 사업을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응은 타 시·도가 주요 공약을 확정해 주요 하 공약을 가다듬고 총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실·국 별로 대선공약 아이디어를 모아 최근 미래 대구비전을 ‘국제지식 산업도시’로 결정하고, 총 사업비 13조원에 달하는 12가지 전략사업을 확정했다. 대구시는 대선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약 사업을 조정·제

의한다. 전략까지 세워둔 상태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오는 29일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박근혜, 이명박, 고진화, 원희룡 등 대선 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공약토론회인 ‘2007 정책비전대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공약 개발과 검증에 나선 상황

이어서 지역 공약과 비전 건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대회는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호남의 중요성을 감안해 첫 행사로 치러진다. 29일 토론회는 경제분야를 대상으로 열리는 것이지만 호남 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광주 문화

도시,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 프로젝트),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섬관광개발 프로젝트,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지원 방안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정권 창출을 위해 지역 현안 해결 지원을 약속하며 구매작전을 펴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좋은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시는 대선 공약 후보로 40개의 주요 사업을 발굴, 이를 공약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구상 단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6월말까지 공약변역 사업을 발

표한다는 계획아래 내부 검토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29일의 한나라당 토론회에 적극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공약화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아직 회동 한번 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관련된 사업 발굴을 위해 다음 주 초에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만나 각각 별도의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각 정당의 정치일정에 따라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행정불이익 구제길 넓어진다

행소법 23년만에 대수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돼 패소하면 법원의 결정을 강제로 이행하게 함으로

서 국민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소송이 진행

되는 동안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법원이 허가하는 가처분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84년 행정소송법이 개정된 뒤 23년간 환경 및 공정거래 처분 등 행정소송이 8배나 급증했음에도 행

정기관의 ‘억울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구제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4월 특별분과위를 구성해

현행 행정소송법 조항을 대폭 뜯어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공개했다.

대법원도 법원 중심의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법무부가 8월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면 입법 과정에서 법원-행정기관-현법제관소 등 관련기관 간 사법심사 범위, 행정 자율성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에선 “호남운하 먼저” 측근들은 “경부운하 부터”

이명박 공약 ‘갈팡질팡’

한나라당이 경선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호남 운하와 경부 운하의 착공 시기를 둘러싸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이 밝힌 ‘호남운하 우선 착공 방침’이 사실상 물 건너가고 경부 운하가 우선 착공되거나 호남 운하와 동시 착공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은 지난 14일 광주를 방문,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과 관련, “(집권하면) 운하사업은 반드시 한다”며 “경부 운하보다 영산강 운하(호남 운하) 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나후 지역의 수요 창출을 위해 SOC를 먼저 개발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호남 운하 우선 착공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은 이 전 시장이 밝힌 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지난 21일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는 서울 한국프

레스센터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 경부 운하가 가장 먼저 착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가 사실상 이명박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가다듬고 총괄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호남운하 우선 착공 방침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호남 운하 우선 착공 방침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호남 운하는 경부 운하와 동시 착공될 것”이라고 이 전 시장의 광주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의 또 다른 핵심 측근도 “현재 상황으로는 호남 운하가 경부운하보다 먼저 착공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의 운하 공약의 현실성이나 타당성을 따지기 앞서 자신의 발언을 편의에 따라 불과 며칠만에 뒤집어 버린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BORYUNG 보령제약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먼지

가래, 기침, 목이 답답할 때 -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점막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신선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용각산 쿨 TV-CF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908-0500

50 BORYUNG 보령 창업 50주년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 - 용각산 쿨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점막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신선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